Check for updates

사회과학연구 제37권 4호(2026)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133-159
http://dx.doi.org/10.16881/jss.2026.10.37.4.133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종단적 매개효과*

서 은 경, 박 선 숙†

대동대학교, 동명대학교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종단적 매개효과 규명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문화 수용태도가 높은 다문화 청소년은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은 청소년은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낮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문화 수용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청소년은 사회적 지지도 증가하였고, 사회적 지지가 증가한 청소년은 심리적 부적응이 감소하였다. 둘째,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는 초기 사회적 지지와는 정적 관계가 있었지만, 심리적 부적응이나 사회적 지지의 종단적 변화에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셋째, 한국문화 수용태도와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의 초기값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 심리적 부적응 변화율에 영향을 미쳤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지지의 변화를 통해 심리적 부적응 변화가 감소하는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보다 한국문화 수용태도가 심리적 부적응에 더 중요한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을 완화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다문화 청소년, 이중문화 수용태도, 사회적 지지, 심리적 부적응, 잠재성장 모형, 종단연구

---

* 이 논문은 주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선숙,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E-mail : ssp2124@tu.ac.kr
서은경, 대동대학교 간호학부 초빙교수(제1저자)

■ 최초투고일 : 2026년 5월 19일 ■ 심사마감일 : 2026년 9월 3일 ■ 게재확정일 : 2026년 10월 15일

1. 서 론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 국제결혼의 증가를 기점으로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이행해 왔다. 행정안전부(2024)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가구원(가구주, 배우자, 자녀 포함)은 2023년 기준 약 119만 명을 기록하며 우리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다문화 대상자는 2007년 약 14만 명에서 2023년 약 42만 명으로 3배가량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다문화 청소년 수 또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에 교육부에서 조사한 다문화 학생 수는 193,153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의 3.9%에 해당하며 20만 명을 앞두고 있다(교육통계서비스, 2024).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의 약 5.9%가 다문화 학생일 정도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매년 약 1만 명 이상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적 변화는 사회적 다양성을 확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다문화가정 내 갈등, 경제적 취약성, 교육 이탈 등 복합적인 사회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 사회의 미래 인적 자원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 청소년이 겪는 발달기적 혼란 외에도 외형적 차이, 언어 습득의 지연,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인해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는 위축,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모상현, 2018; 양영미, 이선영, 2020). 장혜림, 이래혁(2021)은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과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erry(1997)는 문화적응 과정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 및 사회문화적 적응과 연결되며, 그 결과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부적응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을 결정짓는 핵심 변인은 이중문화 수용태도이다. 부모의 서로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는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이중문화 정체성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윤미리, 장유나, 홍세희, 2020). 또한, 주변인으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는 이중문화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심리적 부적응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권구택, 2018).

그러나 기존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측정의 다각화 부족이다. 대다수 연구가 거주국(한국) 문화 수용태도와 외국인 부모의 문화 수용태도를 단일 차원으로 혼용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실제 다문화 청소년 중에는 두 문화를 모두 수용하거나, 혹은 어느 한쪽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등 배타적 관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Berry(1997)는 문화적응을 단순히 '모국문화에서 벗어나 한국문화로 이동하는 하나의 연속선'으로 보지 않고, 주류사회 문화에 참여하고 수용하는 정도와 자신의 출신문화 또는 유산문화를 유지하는 정도를 서로 독립적인 차원으로 보는 이차원적(bidimensional) 문화적응 관점을 제안하였다. 즉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에도 한국문화 수용은 한국사회 및 주류문화에 적응하고 참여하는 정도이며, 외국부모문화 수용은 부모의 출신문화 및 자신의 문화적 유산을 유지하고 수용하는 정도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최지예, 문우정(2023)의 연구에서도 가족·교사·또

래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국가정체성, 자아탄력성 등이 한국문화 수용태도와 외국문화 수용태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에게 한국문화와 외국 부모문화가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이 다르므로 이를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예측 관계의 방향성과 시간적 흐름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사회적 지지망의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심리적 건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종단적 메커니즘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 태도와 심리적 부적응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발달단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므로 이를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충모형에 따르면, 개인이 가족, 친구 및 교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경험할 경우 스트레스 상황을 해석하고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정보적・사회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Cohen & Wills, 1985).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일반적인 청소년기의 발달과업과 함께 문화적 차이, 문화적응스트레스, 정체성 형성 및 또래관계의 어려움 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적응을 위한 중요한 보호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중에서 가족지지는 이중문화 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으로 발전하는 것을 상당 부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채송희, 2008).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 친구 지지가 높을수록 다문화에 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심리적 부적응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권구택, 2018; 설진배, 김소희, 2017; Goebert, 2009).

Cobb(1976)는 가족, 친구, 교사에게서 받는 정서적・정보적 지지가 청소년에게 보호・소속감・정서적 안정과 도움이라는 공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우울을 감소시키고(김한나, 이정화, 2024; 정채윤, 배성만, 2025), 학교적응을 돕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가남, 진평파, 이창식, 마팅팅, 2025). 김한나, 이정화(2024)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관련되었으며,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한국문화 수용 태도'와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로 세분화하여, 이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심리적 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단순히 특정 시점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수준을 넘어, 청소년기 동안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어떠한 형태(선형 혹은 비선형)로 변화하는지 그 '발달궤적'을 직접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 개개인이 겪는 시간적 변화(Within-person change)와, 그 변화의 양상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Between-person difference)를 동시에 통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으며 보다 정교한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생애과정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에 따르면 개인의 발달은 특정 시점의 상태가 아니라 시간적 연속성 속에서 이루어지며, 개인의 발달과 사회

적 환경은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한다(Elder, 1998). 또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는 청소년의 발달이 가족, 또래, 학교 및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Bronfenbrenner, 1979).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 수용태도와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부적응 역시 특정 시점의 수준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과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적 역동성을 고려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적용하였다. 특히 초6에서 중3에 이르는 시기는 정체성 혼란이 가중되고 사회적 지지망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생애 전환기라는 점에서, 이 시기의 종단적 분석은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6학년(3차)부터 중학교 3학년(6차)까지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다차원적 지원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심리적 부적응, 사회적 지지 각각의 종단적 성장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심리적 부적응, 사회적 지지의 각각의 성장 변화에 따른 종단적 상호 성장 변화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종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심리적 부적응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청소년기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을 둘러싼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게 된다(장혜림, 이래혁, 2021).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이중문화 노출로 인해 문화, 언어, 외모 등에서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에 혼란이 될 수 있다(Berry, 1997). 즉 이중문화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심리적 부적응이 발생할 수 있다(김은경, 김종남, 2016; 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한 개인이 주류문화로 흡수되어 동화되는 것 또는 두 가지 이상 문화가 갈등 또는 대립한다는 이분법적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 도출된 개념이다.

적극적인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외국인 부모 문화와 거주 국가의 주류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상승하고 차별에 의한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rry, Kim, Minde, & Mok, 1987; Phinney, Horenczyk, Liebkind, & Vedder, 2001). 이중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활발한 또래관계 형성,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의 상승, 학교생활 적응에 청소년기의 과업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지만(윤인진, 김은빈, 2012; 이래혁, 장혜림, 2019; 이현주, 강현아, 2011), 이중문화를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면 문화적응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자아 정체감 혼란, 우울, 사회성 위축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이현주, 강현아, 2011).

다문화 청소년에게 있어 심리적 부적응은 우울

과 사회적 위축 등으로 구성되는데,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문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을 높이며(오낙윤, 이소연, 2021; 이영주, 박륜경, 이수경, 2017; 장혜림, 이래혁, 2021), 다문화 청소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위축, 불안과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Sirin et al., 2013). 또한 다문화 청소년은 이중문화 환경에 적응하느라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부정적인 차별과 낙인을 경험하고 있다(김수미, 정경은, 2013; 설경옥, 황다솔, 임지영, 2018; 은선민, 이수현, 이강이, 2019). 이러한 환경은 결과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이 이중문화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우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박동진, 김송미, 2021b; 장은실, 2021).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이 사회적 관계에서 움츠러들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회적 위축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며(김윤정, 이진향, 2022; 주소희, 오인근, 안세진, 2021), 다문화 수용이 잘 될수록 두 문화를 동시에 적응하기 쉽고,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력이 높아진다(Bene-Martinez & Haritatos, 2005).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서로 다른 증상이지만 '내재화된 심리적 부적응'을 의미한다. 우울은 주로 정서적·내면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반면, 사회적 위축은 대인관계 및 사회적 기능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청소년기의 심리적 부적응은 하나의 증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어려움과 사회적 기능의 저하가 함께 나타나는 다차원적인 내재화 문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두 변수를 청소년의 전반적인 심리적 부적응의 하위 측면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국내 청소년 연구에서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독립적인 변수로 분석되기도 하지만, 박병선, 배성우, 박경진, 서미경, 김혜지(2017)와 같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설명하는 서로 밀접한 문제로 함께 연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된다.

2)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타인으로 하여금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인식하면서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를 말하며(Cobb, 1976), 부모, 가족, 친구, 이웃 등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홍미기, 2009)으로 정의된다.

Zimet 등(1988)은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를 개발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하나의 관계 원천으로 한정하지 않고, Family, Friends, Significant Other라는 서로 다른 지지 원천으로 구분했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다양한 지지원(source)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 설명한 것이다. 또한 Narainsamy 외(2024)는 청소년의 부모·교사·친한 친구의 지지를 동시에 측정하여 사회적 지지로 분석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가족, 또래, 학교라는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문화적 적응과 정체성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양한 지지원의 통합적인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태진(2019)의 연구에서도 가족·친구·교사 등의

지지 수준과 구성에 따라 사회적 지지 유형이 구분되며,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일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은 사회적응을 위해서 특히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으로 청소년의 발달과정 중 가장 근접 관계인 가족 지지, 친구 지지, 교사 지지로 구분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다문화에 관한 수용도도 높아지며(신윤진, 윤창영, 2010; Goebert, 2009), 이중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게 가질수록 또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적응을 잘할 수 있다(박동진, 김송미, 2021b; 이지언, 정익중, 장유다, 주영하, 2015).

Jin & Liu(2026)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지지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며, 이가남 외(2025)와 장덕희, 임재룡, 신현진(2025)의 연구에서도 이중문화수용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부모관심과 친구지지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어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윤홍주(2026)의 연구에서 부모지지와 친구지지 등이 저수용 또는 한국문화편중 집단에서 이중문화수용 집단으로 긍정적으로 전이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3)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부적응

청소년 발달에서 가정과 학교, 또래,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 등과 같은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청소년에게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조혜정, 이재경, 박은아, 2017).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Ward와 Kennedy(1993)의 문화 간 전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하나의 중요한 사회·심리적 경로로 작동할 수 있다.

천지은과 박지선(2021)의 연구에서는 부모 지지가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위축에 친구 지지가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고, 교사 지지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김원영, 김경식, 2020)는 연구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에게 있어 친구 지지와 교사 지지라는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위축이라는 심리적 변수에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위축은 다문화 청소년의 외모 차이에서 오는 따돌림이나 사회적 차별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심화될 수 있다고 본다(모상현, 2018; Wilkinson & Pickett, 2020). 사회적 위축이 높은 청소년은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심리적인 부적응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박동진, 김송미, 2021a; Watson & Nesdale, 2012). 즉, 개인 또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위축을 경험한 다문화 청소년은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게 되고, 사회 진출에 장애가 되어 성인기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최태진(2021)의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가족·친구·교사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등이 높고 우울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선미(2022)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낮추고, 낮아진 우울이

다시 학교중단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유선미, 김정민, 이주연(2024)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우울 변화궤적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을 감소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3.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그들의 객관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tudy: MAPS) 자료를 활용하였다. 선정된 다문화가족 청소년 1,635명 중 정체성 혼란이 시작되거나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 사춘기 시기인 초등 6학년(3차)부터 중학교 3학년(6차)까지를 연구 대상 데이터로 선정하였다. 그중에서 설문에 응답하지 않는 청소년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 최종 연구 대상은 6차 연도인 중학교 3학년까지 연속적으로 설문에 모두 응답한 청소년 1,329명으로 제한하였다.

2) 측정 도구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노충래와 홍진주(2006)가 사용한 10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양계민 외, 2012). 이 척도는 다문화 청소년이 문화에 적응하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음악, 영화, 의복, 문화활동 참여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문화 수용태도 5문항,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 5문항으로 각각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코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 “매우 그렇다” 4로 되어 있으며, 해당 문항들의 평균값으로 정의하였다. 한국문화 수용태도의 신뢰도(Cronbach’s α값)는 초6 .745, 중1 .777, 중2 .758, 중3 .789로 나타났으며,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는 초6 .784, 중1 .787, 중2 .790, 중3 .796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Dubow & Ulman(1989)이 개발한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SSAS)를 보완하여 사용한 한미현(1996)의 척도를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양계민 외, 2012). 한미현(1996)의 척도는 가족지지 7문항, 친구지지 7문항, 교사지지 6문항의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친구 지지와 교사 지지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코딩되어 있다. 부모 지지는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4로 코딩되어 있어 각 척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5점 척도로 변환하였으며 하위변수의 평균값을 구한 다음 평균값을 표준화(Z-score) 후 사회적 지지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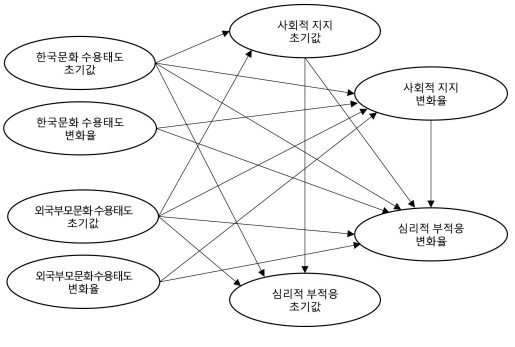
가족지지의 신뢰도(Cronbach’s α값)는 초6 .932, 중1 .939, 중2 .936, 중3 .937로 나타났다. 친구지지는 초6 .967, 중1 .968, 중2 .967, 중3 .948로 나타났다. 교사 지지는 초6 .961, 중1 .960, 중2 .964, 중3 .922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지지 전체의 신뢰도는 초6 .948, 중1 .947, 중2 .949, 중3 .920으로 나타나 모두 신뢰도가 .9 이상으로 나와 시회적 지지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부적응은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로 인한 우울과 사회적 위축으로 구성하였으며, 우울 10문항, 사회적 위축 5문항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료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은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의

우울척도 13문항 중 3문항을 제외한 10문항을 수정하여 만든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1)의 우울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양계민, 김승경, 김윤영, 2012). 본 척도는 Likert 4점 척도로 평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의 원자료에서 '나는 부끄럼을 많이 탄다' 문항과 '나는 수줍어 한다' 문항이 응답자가 응답하기에 상당히 유사한 문항으로 단어의 사전적 의미 또한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문항을 상관분석 한 결과, 상관계수 값이 .80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나는 부끄럼을 많이 탄다' 문항을 삭제하였다. 우울의 신뢰도(Cronbach's α값)는 초6 .916, 중1 .918, 중2 .907, 중3 .905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은 초6 .878, 중1 .886, 중2 .878, 중3 .881로 나타났다. 한편, 심리적 부적응 전체의 신뢰도는 초6 .913, 중1 .915, 중2 .907, 중3 .910으로 나타나 심리적 부적응 측정 도구의 내적일치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과 연구문제를 기반으로 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사회적 지지, 그리고 심리적 부적응의 발달궤적에서의 예측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은 LaFromboise, Coleman, & Gerton(1993)의 이차문화획득 모델과 더불어 Schwartz, Unger, Zamboanga, & Szapocznik (2010)의 문화적응 재개념화 모형, Berry(1997)의 문화적응과 적응 모형 및 García Coll 외(1996)의 소수집단 아동 발달 통합모형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Schwartz 등(2010)은 문화적응을 기존 문화의 포기와 새로운 문화의 수용이라는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라, 출신 문화와 주류문화의 관행, 가치 및 정체성이 상호작용하는 다차원적인 과정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문화 수용태도와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를 서로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Berry(1997)는 문화적응 과정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 및 사회문화적 적응과 연결되며, 그 결과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García Coll 외(1996)의 통합모형 역시 소수집단 아동・청소년의 발달을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와 같은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종합하면,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문화적 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구 및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지지와 연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 수용태도와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더 나아가 문화적응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각 변수의 초기 수준뿐 아니라 변화 정도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이중문화 수용태도,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부적응 간의 종단적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중문화 수용태도, 사회적 지지, 심리적 부적응의 발달궤적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여 분석을실시하였다. 구체적인 통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 α값을 구하였다. 셋째, 연구변수의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평균을 기술하고, 각 변인별 변화추세를 규명하였다. 넷째, 각 변인별 초기값과 변화율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반복 측정된 자료의 종단적 변화를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종단연구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법이다(Bollen & Curran, 2006). 추정 방법은 패널 자료의 결측치를 보완하고자 최대정보우도추정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적용하였다. 이는 무선적인 결측치가 있거나,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보다 정확하게 미지수 추정을 할 수 있다(Arbuckle, 1996).

4.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다문화 청소년 1,329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전체의 49.2%, 여학생은 50.8%로 서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거주지별로 보면 중소도시가 45.1%, 읍/면이 28.9%, 대도시가 26.0%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 전체의 46.8%, 2년제 대학 학력이 25.6%, 4년제 대학 학력이 1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은 고졸 출신이 전체의 51.9%, 중졸 이하가 30.5%, 4년제 대학 학력이 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출생 국가는 일본이 전체의 34.3%, 필리핀이 25.8%, 조선족이 18.4%, 기타 중국 국적이 6.9%, 태국이 3.8%, 한국이 3.2%, 베트남이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변인의 구조모형 분석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투입된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다변량 정규분포성(multivariate normality)을 점검하였다. 정규분포성은 각 관측변인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값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통계적 모형 하 각 변인의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한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변인의 다변량 정규분포성은 변인들의 왜도(-.43~.37)와 첨도(-.61~.82)가 모두 Kline(2005)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모수치를 추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3) 발달궤적 추정과 변화모형 설정

(1) 변인별 평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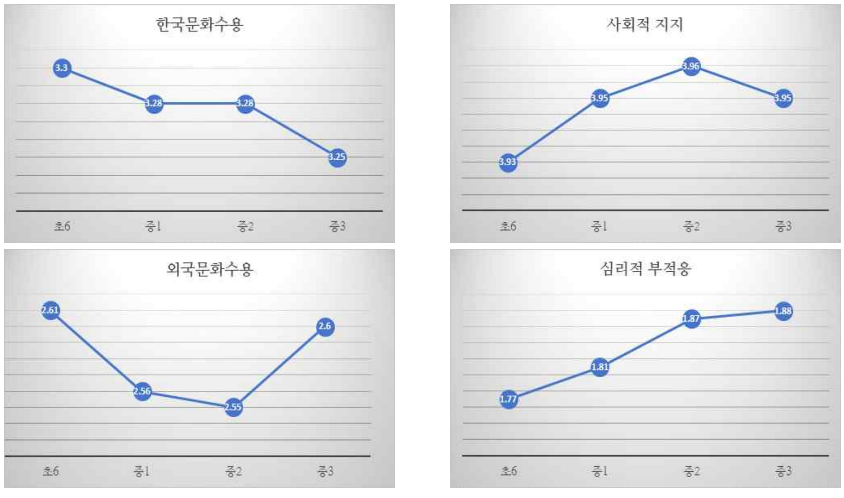
한국문화 수용태도,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 사회적 지지, 그리고 심리적 부적응의 평균값을 초등 6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기술하면 다음의 <표 2>와 같으며 추세 변화 그래프는 <그림 2>와 같다.

<표 1> 변인의 기술통계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한국문화 수용태도 초6	3.30	.45	1.4	4.0	-.27	.11
한국문화 수용태도 중1	3.28	.47	1.0	4.0	-.43	.82
한국문화 수용태도 중2	3.28	.45	1.4	4.0	-.17	.04
한국문화 수용태도 중3	3.25	.47	1.0	4.0	-.27	.45
외국부모문화 수용 초6	2.61	.56	1.0	4.0	.05	.05
외국부모문화 수용 중1	2.56	.57	1.0	4.0	-.08	.14
외국부모문화 수용 중2	2.55	.57	1.0	4.0	.04	.08
외국부모문화 수용 중3	2.60	.57	1.0	4.0	-.07	.04
사회적 지지 초6	3.98	.65	1.3	5.0	-.41	.01
사회적 지지 중1	3.99	.63	1.2	5.0	-.40	.14
사회적 지지 중2	4.00	.61	1.3	5.0	-.37	.15
사회적 지지 중3	3.99	.62	1.0	5.0	-.38	.51
심리적 부적응 초6	1.77	.50	1.0	3.9	.37	-.25
심리적 부적응 중1	1.81	.52	1.0	3.8	.21	-.61
심리적 부적응 중2	1.87	.52	1.0	4.0	.13	-.43
심리적 부적응 중3	1.88	.52	1.0	3.9	.17	-.36

<표 2> 변인별 평균 변화

변인	초6	중1	중2	중3
한국문화 수용태도	3.30	3.28	3.28	3.25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	2.61	2.56	2.55	2.60
사회적 지지	3.93	3.95	3.96	3.95
심리적 부적응	1.77	1.81	1.87	1.88



<그림 2> 변인별 평균 변화 그래프

한국문화 수용태도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평균 3.30, 중학교 1학년 때 평균 3.28, 중학교 2학년 때 평균 3.28, 중학교 3학년 때 평균 3.25로 점점 하락하는 추세이다.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는 초등학교 6학년 때 2.61에서 중학교 1학년 때 평균 2.56, 중학교 2학년 때 평균 2.55로 하락하였다가 중학교 3학년 때 평균 2.60으로 다시 상승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평균 3.93에서 중학교 1학년 때 평균 3.95, 중학교 2학년 때 평균 3.96, 중학교 3학년 때 평균 3.95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진학 시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부적응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평균 1.77, 중학교 1학년 때 평균 1.81, 중학교 2학년 때 평균 1.87, 중학교 3학년 때 평균 1.88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4) 잠재성장모형 및 발달궤적 추정

변인들의 발달궤적을 파악하기 위해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함수변화모형의 3가지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였다. 무변화모형은 초기값을 1로 설정하여 변인들이 변화하지 않음을 가정한 모형이다. 선형변화모형은 변화율을 0, 1, 2, 3으로 고정하여 4년 동안 변인들이 선형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가정한 모델이다. 이차함수변화모형은 변화가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증가 후 감소하는 형태 혹은 감소 후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을 가정한 모형이다.

(1) 한국문화 수용태도의 잠재성장모형 및 발달궤적 추정

한국문화 수용태도의 평균 변화를 잠재성장모형으로 적용한 결과(<표 3> 참조), 한국문화 수용태도에서는 무변화모형의 χ^2값은 81.205(df=8, p<.001)이며, TLI값은 .940, CFI값은 .920, RMSEA값은 .083으로 나타났다. 선형변화모형은 χ^2값이 8.542(df=4, p<.001)이며, TLI값은 .995, CFI값은 .996, RMSEA값은 .023으로 나타났다. 이차함수변화모형은 χ^2값이 18.388(df=5, p<.01)이며, TLI값은 .971, CFI값은 .985, RMSEA값은 .045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안전하게 평가하기 위해 χ^2값을 참고로 검토하고 TLI, CFI 값과 RMSEA값을 모형평가 기준으로 사용하였다(Bollen & Long, 1993). 적합도 지수의 기준으로 3가지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홍세희(2000)의 적합도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였다.

선형변화모형에서 한국문화 수용태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추정치를 살펴보면(<표 4> 참조), 한국문화 수용태도 초기값의 예측평균은 2.588이고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변화율의 예측평균은 -.005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추정치는 각각 .171과 .010이며, 모두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국문화 수용태도의 변화율이 유의하지 않은 것은 다문화 청소년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한국문화 수용태

<표 3> 한국문화 수용태도의 변화모형 적합도

모형	$\chi^2(df)$	TLI	CFI	RMSEA
무변화	81.205(8)***	.940	.920	.083
선형변화	**8.542(5)*** **	**.995**	**.996**	**.023**
이차함수변화	18.388(4)**	.971	.985	.045

**p<.01, ***p<.001

<표 4> 한국문화 수용태도 모형의 분산 추정치

모형	초기값		변화율		초기값-변화율의 공분산 (상관계수)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선형변화모형	2.588***	.171***	-.005	.010***	-.010*(-.247)

*p<.05, ***p<.001

도에 큰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초기값 분산이 유의함은 초기수준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의 한국문화 수용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변화율 분산이 유의함은 4년간 한국문화 수용태도의 변화율에 있어 개인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공분산 추정치는 초기값과 변화율 간에 -.010이고, 상관계수는 -.24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문화 수용태도 초기수준이 높을수록 연도별 선형증가율이 낮아지며, 한국문화 수용태도 초기수준이 낮을수록 연도별 선형증가율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즉,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학년이 올라가면서 한국문화 수용태도 증가율이 완만하게 변하는 것이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문화 수용태도가 낮을수록 학년이 올라가면서 한국문화 수용태도 증가율이 가파르게 변한다는 것이다.

(2)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의 잠재성장모형 및 발달궤적 추정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의 평균 변화를 잠재성장모형으로 적용한 결과(<표 5> 참조),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에서는 무변화모형의 χ^2값은 53.558 (df=8, p<.001)이며, TLI값은 .963, CFI값은 .970, RMSEA값은 .065로 나타났다. 선형변화모형은 χ^2값이 26.997(df=5, p<.001)이며, TLI값은 .971, CFI값은 .986, RMSEA값은 .058로 나타났다. 이차함수변화모형은 χ^2값이 13.867(df=4, p<.01)이며, TLI값은 .990, CFI값은 .994, RMSEA값은 .043으로 나타났다. 3가지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적합도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이차함수모형을 채택하였다.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의 이차함수모형에서 얻은 초기값과 1차변화율, 2차변화율의 추정치를 살펴보면(<표 6> 참조),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 초기값의 예측평균은 2.614이고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1차 변화율의 예측평균은 -.080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며, 2차 변화율의 예측평균은 .025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이차함수변화모형은 다문화 청소년의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에서 중등 2학년에서 중등 3학년으로 갈 때 외국부모문화 수용 값이 상승하는 변화를 잘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다.

초기값의 분산추정치는 .148이며,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1차 변화율과 2차 변화율

<표 5>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의 변화모형 적합도

모형	$\chi^2(df)$	TLI	CFI	RMSEA
무변화	53.558(8)***	.963	.970	.065
선형변화	26.997(5)***	.971	.986	.058
이차함수변화	**13.867(4)****	**.990**	**.994**	**.043**

**p<.01, ***p<.001

<표 6>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 모형의 분산 추정치

모형		평균	분산	초기값-변화율의 공분산 (상관계수)
이차함수모형	초기값	2.614***	.148***	(초기↔1차) .000
	1차변화율	-.080***	.007	(1차↔2차) .000
	2차변화율	.025***	.000	(초기↔2차) .000

***p<.001

의 분산추정치는 각각 .007과 .000이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초기값 분산이 유의함은 초기수준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의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에 개인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변화율 분산이 유의하지 않음은 4년간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 변화율이 개인 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초기값과 1차 변화율, 1차 변화율과 2차 변화율, 초기값과 2차 변화율 간의 공분산 추정치는 모두 .000으로 추정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 초기수준의 높고 낮음이 연도별 선형증가율과 관련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사회적 지지의 잠재성잠모형 및 발달궤적 추정

사회적 지지의 평균 변화를 잠재성장모형으로 적용한 결과(<표 7> 참조) 사회적 지지에서는 무변화모형의 χ^2값은 65.628(df=8, p<.001)이며, TLI값은 .975, CFI값은 .967, RMSEA값은 .074로 나타났다. 선형변화모형은 χ^2값이 10.306(df=5, p<.001)이며, TLI값은 .996, CFI값은 .997, RMSEA값은 .028로 나타났다. 이차함수변화모형은 χ^2값이 27.604(df=4, p<.01)이며, TLI값은 .984, CFI값은 .987, RMSEA값은 .058로 나타났다. 3가지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적합도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선형변화모형에서 얻은 초기값과 변화율의 추정치를 살펴보면(<표 8> 참조), 사회적 지지 초기값의 예측 평균은 3.984이고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변화율의 예측평균은 .004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표 7> 사회적 지지의 변화모형 적합도

모형	$\chi^2(df)$	TLI	CFI	RMSEA
무변화	65.628(8)***	.975	.967	.074
선형변화	**10.306(5)*** **	**.996**	**.997**	**.028**
이차함수변화	27.604(4)**	.984	.987	.058

**p<.01, ***p<.001

<표 8> 사회적 지지 모형의 분산 추정치

모형	초기값		변화율		초기값-변화율의 공분산 (상관계수)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선형변화모형	3.984***	.229***	.004	.017***	-.019***(-.310)

***p<.001

않았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추정치는 .229와 .017이며, 모두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변화율이 유의하지 않은 것은 다문화 청소년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사회적 지지에 큰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초기값 분산이 유의함은 초기수준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변화율 분산이 유의함은 4년간 사회적 지지 변화율이 개인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초기값과 변화율 간의 공분산 추정치는 -.019이고, 상관계수는 -.3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적 지지 초기수준이 높을수록 연도별 선형증가율이 낮아지고, 사회적 지지 초기수준이 낮을수록 연도별 선형증가율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즉, 초등학교 6학년 때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년이 올라가면서 사회적 지지 증가율이 완만하게 변하는 것이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학년이 올라가면서 사회적 지지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변한다는 것이다.

(4) 심리적 부적응의 잠재성장모형 및 발달궤적 추정

심리적 부적응의 평균 변화를 잠재성장모형으로 적용한 결과(<표 9> 참조), 심리적 부적응에서는 무변화모형의 χ^2(카이제곱) 값은 156.289(df=8, p<.001)이며, TLI값은 .931, CFI값은 .908, RMSEA값은 .118로 나타났다. 선형변화모형은 χ^2 값이 18.772(df=5, p<.001)이며, TLI값은 .990, CFI값은 .991, RMSEA값은 .046으로 나타났다. 이차함수변화모형은 χ^2 값이 55.027(df=5, p<.001)이며, TLI값은 .963, CFI값은 .969, RMSEA값은 .087로 나타났다. 3가지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적합도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였다.

심리적 부적응의 선형변화모형에서 얻은 초기값과 변화율의 추정치를 살펴보면(<표 10> 참조), 심리적 부적응 초기값과 변화율의 예측평균은 각각 1.772와 .039이고 모두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추정치는 각각 .149와 .013이며, 모두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초기값 분산이 유의함은 초기수준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적응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변화율 분산이 유의함은 4년간 심리적 부적응 변화율이 개인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초기값과 변화율 간의 공분산 추정치는 -.014이

<표 9> 심리적 부적응의 변화모형 적합도

모형	$\chi^2(df)$	TLI	CFI	RMSEA
무변화	156.289(8)***	.931	.908	.118
선형변화	**18.772(5)*** **	**.990**	**.991**	**.046**
이차함수변화	55.027(5)***	.963	.969	.087

***p<.001

<표 10> 심리적 부적응 모형의 분산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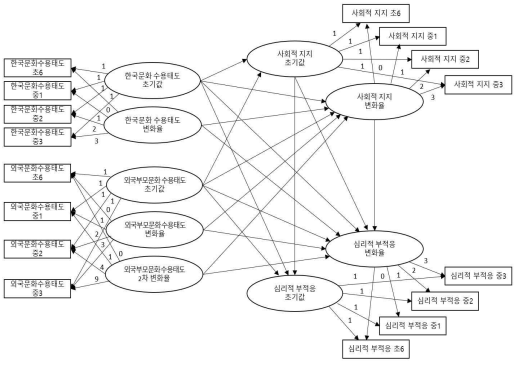
모형	초기값		변화율		초기값-변화율의 공분산 (상관계수)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선형변화모형	1.772***	.149***	.039***	.013***	-.014***(-.326)

***p<.001

고, 상관계수는 -.326으로 추정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심리적 부적응 초기수준이 높을수록 연도별 선형증가율이 낮아지고, 심리적 부적응 초기수준이 낮을수록 연도별 선형증가율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즉, 초등학교 6학년 때 심리적 부적응이 높을수록 학년이 올라가면서 심리적 부적응 증가율이 완만하게 변한다는 것이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심리적 부적응이 낮을수록 학년이 올라가면서 심리적 부적응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변한다는 것이다.

5) 잠재성장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 발달궤적과 사회적 지지 발달궤적, 그리고 심리적 부적응 발달궤적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잠재성장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잠재성장모형

<표 11>은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 발달궤적과 사회적 지지 발달궤적, 그리고 심리적 부적응 발달궤적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 .924, CFI .947, RMSEA .062로 나타나 홍세희(2022)가 제시한 적합도 해석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표 11>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chi^2(df)$	TLI	CFI	RMSEA
513.493(83)	.924	.947	.062

<표 12>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발달궤적과 사회적 지지 발달궤적, 그리고 심리적 부적응 발달궤적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검증한 표이다. 이중문화 수용태도 발달궤적이 심리적 부적응 발달궤적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문화 수용태도 초기값은 심리적 부적응 초기값에 β=-.115(p<.05)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문화 수용태도 초기값이 심리적 부적응 변화율에는 β=-.374(p<.01)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 한국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청소년일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심리적 부적응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 초기값,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 변화율,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 2차 변화율은 심리적 부적응 초기값과 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문화 수용태도 초기값은 사회적 지지 초기값에 β=.640(p<.001)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 변화율에는 β=-.148(p<.05)로 유의한 부(-)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문화 수용태도 변화율은 사회적 지지 변화율에 β=.627(p<.001)로 유의한 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 한국문화 수용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지지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문화 수용태도가 긍정

<표 12> 잠재성장모형 검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값	p 값
심리부적응초기값 ←	한국문화수용초기값	-.149	.075	-.115	-1.993	.046*
심리부적응변화율 ←		-.139	.048	-.374	-2.930	.003**
심리부적응변화율 ←	한국문화수용변화율	.237	.198	.239	1.201	.230
심리부적응초기값 ←	외국문화수용초기값	.011	.038	.012	.279	.780
심리부적응변화율 ←		-.023	.023	-.088	-1.035	.301
심리부적응변화율 ←	외국문화수용변화율	.069	.171	.090	.402	.687
심리부적응변화율 ←	외국문화수용 2차변화율	-.224	.701	-.412	-.319	.749
사회적 지지초기값 ←	한국문화수용초기값	1.067	.067	.640	15.959	.000***
사회적 지지변화율 ←		-.074	.031	-.148	-2.402	.016*
사회적 지지변화율 ←	한국문화수용변화율	.840	.109	.627	7.714	.000***
사회적 지지초기값 ←	외국문화수용초기값	.431	.042	.364	10.156	.000***
사회적 지지변화율 ←		-.026	.019	-.074	-1.382	.167
사회적 지지변화율 ←	외국문화수용변화율	.302	.169	.292	1.787	.074
사회적 지지변화율 ←	외국문화수용 2차변화율	.919	.754	.135	1.219	.223
심리부적응초기값 ←	사회적 지지초기값	-.530	.048	-.679	-11.077	.000***
심리부적응변화율 ←		.085	.025	.380	3.339	.000***
심리부적응변화율 ←	사회적 지지변화율	-.808	.186	-1.089	-4.355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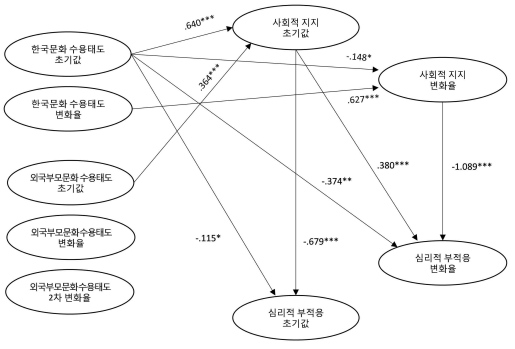
B: 비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S.E.: 표준오차
*p<.05, **p<.01, ***p<.001

적으로 변화한 청소년은 사회적 지지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 초기값은 사회적 지지 초기값에는 β=.364(p<.001)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 초기값이 사회적 지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 변화율과 2차 변화율이 사회적 지지 초기값과 사회적 지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부모의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청소년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부모문화에 대한 수용태도가 변화한다고 해서 사회적 지지가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 발달궤적이 심리적 부적응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사회적 지지 초기값은 심리적 부적응 초기값에 β=-.679(p<.001)로 유의한 부(-)의 영향이 있었고, 심리적 부적응 변화율에는 β=.380(p<.001)로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 변화율은 심리적 부적응 변화율에 β=-1.089(p<.001)로 유의한 부(-)적 영향이 있었다. 즉 초기 사회적 지지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낮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심리적 부적응도 더 많이 감소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지지가 증가한 청소년은 심리적 부적응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 발달궤적과 사회적 지지 발달궤적, 그리고 심리적 부적응 발달궤적 간의 잠재성장모형 검증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잠재성장모형 검증 결과

6)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심리적 부적응 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심리적 부적응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표 13> 참조), 한국문화 수용태도 초기값은 사회적 지지 초기값을 매개로 심리적 부적응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은 B=-.565(p<.001)로 유의한 부(-)적 매개효과가 있었다. 한국문화 수용태도 초기값이 사회적 지지 초기값과 사회적 지지 변화율을 매개로 심리적 부적응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B=.150(p<.01)로 유의한 정(+)적 매개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문화 수용태도 변화율은 사회적 지지 변화율을 매개로 심리적 부적응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B=-.679(p<.01)로 유의한 부(-)적 매개효과가 있었다. 즉, 한국문화 수용태도가 높은 다문화 청소년은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은 청소년은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낮았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문화 수용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청소년은 사회적 지지도 증가하였고, 사회적 지지가 증가한 청소년은 심리적 부적응이 감소하는 매개적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와 심리적 부적응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 초기값은 사회적 지지 초기값을 매개로 심리적 부적응 초기값에 B=-.228(p<.01)로 유의한 부(-)적 매개효과가 있었고, 사회적 지지 초기값과 사회적 지지 변화율을 매개로 심리적 부적응 변화율에는 B=.058(p<.05)로 유의한 정(+)적 매개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 변화율은 사회적 지지 변화율을 매개로 심리적 부적응 변화율에 B=-.244(p<.05)로 유의한 부(-)적 매개효과가 있었다. 즉, 초기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가 높은 다문화 청소년은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은 청소년은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낮았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청소년은 사회적 지지도 증가하였

<표 13> 사회적 지지 매개효과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접효과
한국문화 수용 초기값	사회적 지지 초기	심리적 부적응 초기	-.565***
	(사회적 지지 초기값, 사회적 지지 변화율)	심리적 부적응 변화율	.150**
한국문화 수용 변화율	사회적 지지 변화율	심리적 부적응 변화율	-.679**
외국부모문화수용 초기값	사회적 지지 초기	심리적 부적응 초기	-.228**
	(사회적 지지 초기값, 사회적 지지 변화율)	심리적 부적응 변화율	.058*
외국부모문화 수용 변화율	사회적 지지 변화율	심리적 부적응 변화율	-.244*
외국문화 2차 변화율	사회적 지지 변화율	심리적 부적응 변화율	-.743

*p<.05, **p<.01, ***p<.001

고, 사회적 지지가 증가한 청소년은 심리적 부적응이 감소하는 매개적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가 높아지는 2차 변화율 효과는 사회적 지지 변화율을 매개로 심리적 부적응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B=-.743로 높게 나왔으나 표준오차 역시 높아 유의한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사회적 지지, 그리고 심리적 부적응의 발달궤적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특히 자신이 독립적인 인격체라고 느끼는 사춘기 시절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3차(초6)부터 6차(중3)까지 4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문화 수용태도는 초등학교 6학년 시기부터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는 중학교 2학년 시기까지 하락하다가 마지막 중학교 3학년 시기에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초5부터 중2까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단일 변화궤적을 파악한 이은정(2019), 유창민(2020), 한수연과 김안나(202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초등 6학년보다 중등 1학년에 상승하다가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사회적 지지의 초기수준에서 개인 간 차이가 있고 4년 동안의 변화율에도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지지 초기수준이 높을수록 연도별 선형증가율이 낮게 예측되고, 낮을수록 높게 예측되었다. 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년이 올라가면서 사회적 지지 증가율이 완만하게 변하는 것이고,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태진(2019)이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발달궤적을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심리적 부적응은 초기수준에서 개인 간 차이가 있고 변화율에도 차이가 있었다. 심리적 부적응 초기수준이 높을수록 연도별 선형증가율이 낮게 예측되고, 낮을수록 높게 예측되었다. 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심리적 부적응이 높을수록 학년이 올라가면서 심리적 부적응 증가율이 완만하게 변한다는 것이고,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을 분석한 박동진, 신택수(2022)와 Choe와 Yu(2025)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넷째,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발달궤적과 심리적 부적응의 발달궤적 간의 구조적 인과 관계를 검증한 결과, 한국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청소년은 초기 심리적 부적응 수준도 낮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심리적 부적응이 감소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우울 증상이 높다는 연구 결과(오낙윤, 이소연, 2021; 장혜림, 이래혁, 2021; Sirin et al.,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사회적 위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윤정, 이진향, 2022; 주소희 외, 2021)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한편,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 초기값,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 변화율,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 2차 변화율은 심리적 부적응 초기값과 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부모문화에 대한 수용 정도는 심리적 부적응의 초기 수준이나 시간에 따른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두 문화를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기 쉽고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력을 높인다는 연구(Bene-Martinez & Haritatos, 2005)를 지지하는 것이다.

다섯째,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발달궤적, 사회적 지지의 발달궤적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결과, 초기 한국문화 수용태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지지가 증가하는 정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문화 수용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청소년일수록 사회적 지지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는 초기 사회적 지지 수준과는 관련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지지가 변화하는 과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또래관계 및 친구지지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박동진, 김송미, 2021b; 신윤진, 윤창영, 2010)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적응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두 변수의 관계에서 교사 지지가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박동진, 2019)를 일부 지지하는 것이다.

여섯째, 사회적 지지 발달궤적이 심리적 부적응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초기 사회적 지지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심리적 부적응의 성장 변화가 낮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심리적 부적응의 증가 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지지가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천지은, 박지선, 2021)와 우울에 부모 지지, 친구 지지, 교사 지지가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위축에 친구 지지와 교사 지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김원영, 김경식, 2020)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일곱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심리적 부적응 간에 사회적 지지의 매개적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한국문화 수용태도와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의 초기값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 심리적 부적응 변화율에 영향을 미쳤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지지의 변화를 통해 심리적 부적응 변화가 감소하는 매개적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탄력성, 학업적응,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인 매개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박동진, 김송미, 2021b; 신윤진, 윤창영, 2010; 이래혁, 장혜림, 2019)를 일부 지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응 자체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심리적 적응 과정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와 지지체계를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에게 단순히 한국문화를 교육하거나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요구하는 접근보다는, 문화적 적응 과정에서 가족・친구・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나 심리상담사, 교육복지사 등 학교 관리자는 다문화 청소년과 대화의 폭을 더 넓혀야 하고, 더 나아가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중문화 노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긍정적인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함양시켜서, 다문

화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개입과 올바른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박순희, 2009; 정지윤, 문성호, 2011; Nguyen & Benet-Martínez, 2013).

둘째, 본 연구는 가족, 친구 및 교사의 지지를 사회적 지지라는 상위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이 특정 관계 하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학교・또래관계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접근이다. 따라서 실천적으로는 가족에게만 책임을 부과하거나 학교에만 개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학교-또래를 연결하는 통합적 지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학교에서의 교사 지원체계,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서로 연계하여 다문화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을 특정 시점의 상태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발달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본 연구는 초기값과 변화율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사회적 지지가 높은 청소년이 심리적 부적응이 낮다”는 관계를 넘어, 사회적 지지가 증가하는 청소년에게서 심리적 부적응이 감소하는가라는 종단 변화 간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초기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이후 사회적 지지가 증가한다면 심리적 부적응의 감소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 지원 정책은 특정 시점의 위험군을 선별하여 단기적으로 개입하는 방식뿐 아니라, 청소년의 문화적 수용태도와 사회적 관계 및 심리적 적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입하는 종단적 지원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을 완화하는 중요한 보호 요인(protective factor)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초기 수준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의 변화율 역시 심리적 부적응의 변화율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낮다는 개인 간 차이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지지가 증가하는 청소년에게서 심리적 부적응이 감소하는 개인 내 변화도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단순히 현재의 보호 자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개입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 발달적 자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일회성 상담이나 심리검사에 한정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지지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다섯째, 정책적으로는 다문화 청소년 지원을 ‘문화적응 지원’과 ‘심리정서 지원’으로 분리해서 접근하기보다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응 지원과 가족관계 지원, 또래관계 지원, 교사 및 학교 지원, 심리정서 지원을 연결하는 통합적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지지의 변화가 심리적 부적응의 변화와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주므로, 다문화 청소년 지원기관에서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보다 지속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가 심리적 부적응의 변화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외국부모문화 수용이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외국부모문화의 영향은 청소년의 부모 출신

국가, 가정 내 문화적 상호작용, 부모의 한국어 능력, 문화적 정체성, 가족관계의 질, 차별 경험, 학교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가 어떠한 조건에서 긍정적인 효과 또는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단일한 차원으로 간주하지 않고 한국문화 수용태도와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두 문화에 대한 수용이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는데 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이 동일한 기능과 영향력을 갖는 단일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각각의 문화가 청소년의 발달과 사회적 관계에서 갖는 기능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 적응을 한국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동화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한국문화와 외국부모문화가 서로 다른 의미와 기능을 가지면서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문화적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 지원정책과 실천에서는 한국문화 수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외국부모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여덟째, 가족・친구・교사의 역할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부모문화 수용은 가족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반면 한국문화 수용과 사회적 지지의 변화가 연결된 결과를 고려하면 학교에서는 또래관계와 교사관계를 강화하는 개입이 중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문화 수용태도 및 외국부모문화 수용태도와 사회적 지지, 그리고 심리적 부적응의 발달궤적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종단적 매개 관련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구조모형에서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 가족관계, 차별경험, 학교환경 등 주요 통제 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변수 간 상호적 영향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정교한 종단모형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된 관계의 방향성과 인과적 메커니즘을 보다 엄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문화와 외국부모문화가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주였다. 또한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다문화 수용태도와 사회적지지, 심리적 부적응 간의 관련성을 다차원적 접근으로 확장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가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서는 한국문화 수용을 높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문화적 수용의 변화가 실제 사회적 관계와 지지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교육통계서비스 (2024). 유초중등 주요 통계: 다문화 학생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권구택 (2018).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서회적지지의 조절효과검

증. <인문사회21>, 9(2), 25-36.

김광일 · 김재환 ·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 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김선미 (2022).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지역정책연구>, 33(1), 155-180.

김수미 · 정경은 (2013). 다문화청소년의 낙인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34, 27-49.

김원영 · 김경식 (2020). 사회적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2), 125-150.

김윤정 · 이진향 (2022).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의 다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 131-142.

김은경 · 김종남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 사회적 적응의 관계: 자아 정체감의 매개효과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다문화교육연구>, 9(4), 21-43.

김한나 · 이정화 (2024).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가족복지연구>, 29(3), 567-594.

김혜영 (2020).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및 다문화수용성이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2(1), 87-108.

노충래 ·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서울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모상현 (2018).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교사 또래 친구요인의 조절 효과. <청소년문화포럼>, 54, 67-93.

박동진 (2019).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융합정보논문지>, 9(9), 175-184.

박동진 · 김송미 (2021a).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 23(3), 127-146.

박동진 · 김송미 (2021b).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의 순차적 매개효과.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Transactions>, 9(2), 157-167.

박동진 · 신택수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위축 그리고 우울로 이어지는 인과적 전이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9(7), 275-308.

박병선 · 배성우 · 박경진 · 서미경 · 김혜지 (2017).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보건사회연구>, 37(2), 72-101.

박순희 (2009).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과 사회적응. <한국아동복지학>, 29, 125-154.

설경옥 · 황다솔 · 임지영 (2018). 다문화 아동의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민족정체성과 내재화된 낙인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1), 71-90.

설진배 · 김소희 (2017). 다문화 배경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다문화수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평화학연구>, 18(1), 155-180.

신명희 외 (2009). 교육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신윤진 · 윤창영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적응, 또래관계 및 이중문화수용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14(2), 1-14.

안선정 · 이현철 · 임지영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31(2), 77-91.

양계민 · 김승경 · 김윤영 (2012). 다문화가족 아동 · 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영미 · 이선영 (2020). 부모의 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위축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3(4), 129-149.

오낙윤 · 이소연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아동연구>, 33(1), 64-83.

유선미 · 김정민 · 이주연 (2024).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변화궤적과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발달지원연구>, 13(2), 55-72.

유창민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 유형. <다문화사회연구>, 13(3), 73-107.

윤미리 · 장유나 · 홍세희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수용성과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직렬다중매개효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3), 25-48.

윤인진 · 김은빈 (2012). 다문화가족의 언어 사용과 아동의 사회정체성. <이중언어학>, 273-407.

윤홍주 (2026).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잠재전이 및 예측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7(2), 211-219.

은선민 · 이수현 · 이강이 (2019).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궤적 유형화: 유형 예측요인과 유형별 심리 · 사회적응. <한국청소년연구>, 30(2), 177-211.

이가남 · 진평파 · 이창식 · 마팅팅 (202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친구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새론상담심리교육연구>, 4(2), 1-14.

이래혁 · 장혜림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학습태도의 관계: 자아탄력성을 통한 친구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7(3), 103-114.

이수경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의 발달양상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및 계층별 예측요인과 문화적응스트레스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3(3), 113-119.

이영주 · 박륜경 · 이수경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심리적 적응 및 학교적응. <교육문화연구>, 23(5), 347-372.

이은정 (2019).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종단 연구: 하위 유형별 우울의 변화와 예측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지언 · 정익중 · 장유다 · 주영하 (2015). 청소년의 휴대폰 의존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와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3), 1-25.

이현주 · 강현아 (2011). 국제결혼아동의 문화정체감과 문화적응유형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32(4), 147-166.

장덕희 · 임재룡 · 신현진 (2025).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와 학교생활적응: 부모관심과 친구지지의 이중

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7(6), 1217-1230.

장은실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응에 대한 종단분석: 우울과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2), 677-688.

장혜림 · 이래혁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을 통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70(1), 1-29.

정지윤 · 문성호 (201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8(8), 265-289.

정채윤 · 배성만 (2025). Influences of National Identity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n Depression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A Longitudinal Study.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11(2), 363-379.

조혜정 · 이재경 · 박은아 (2017).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외적 보호를 통한 의미 추구의 매개된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9(4), 85-110.

주소희 · 오인근 · 안세진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성과 성취동기와의 관계연구: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2(3), 957-971.

채송희 (2008). 한국 주재 국제학교 학생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천지은 · 박지선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내 · 외적 자원, 사회적 위축, 우울의 관련성. <사회적질연구>, 5(2), 1-29.

최지예 · 문우정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태도와 외국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8(2), 1-30.

최태진 (2019). 다문화가정 아동 · 청소년의 연령 변화에 따른 사회적지지 요인의 변화 분석 및 사회적지지 잠재집단 유형과 심리 · 정서적 적응과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31(6), 1765-1779.

최태진 (2021). 다문화 청소년 지지유형 분류 및 인지 · 정서발달 차이 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 23(3), 1417-1434.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 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수연 · 김안나 (2020).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성취동기의 종단적 변화 및 두 변수 간의 관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청소년학연구>, 27(11), 355-381.

행정안전부 (2024).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세종: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홍미기 (2009).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부부 의사소통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홍세희 (2022). 종단자료 분석을 위한 다층모형과 잠재성장 모형. 한국노동연구원, 제9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p. 243-277). Lawrence Erlbaum Associates.

Bene-Martinez, V., & J. Haritatos (2005). Bicultural identify integration: Components and psychological

antecedents. *Journal of personality*, 73(4), 1015-1049.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34.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491-511.

Bollen, K. A., & Curran, P. J. (2006). Latent curve models: A structural equation perspective. John Wiley & Sons.

Bollen, K. A., & Long, J. S. (Eds.). (1993). *Sage focus editions, Vol. 154.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Sage Publications, Inc.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Choe, C., & Yu, S. (2025). Longitudinal cross-lagged analysis between depressive symptoms, social withdrawal, self-esteem, and school adaptation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Psychologica Belgica*, 65(1), 38-53.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etric Medicine*, 38(5), 300-314.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52-64.

Elder, G. H., Jr. (1998). The life course as developmental theory. *Child Development*, 69(1), 1-12.

García Coll, C., Crnic, K., Lamberty, G., Wasik, B. H., Jenkins, R., McAdoo, H. P., & Vázquez García, H. (1996). An integrative model for the study of developmental competencies in minority children. *Child Development*, 67(5), 1891-1914.

Goebert, D. (2009). Social support, mental health, minorities, and acculturative stress. In S. Loue, & M. Sajatovic (Eds.), *Determinants of minority mental health and wellness* (pp. 125-148). New York, NY: Springer.

Jin, H. L., & Liu, H. M. (2026). Dual mediating roles of friend support and self-esteem in the association between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South Korea: The moderating role of depression. *Frontiers in Psychology*, 17, 1817350.

Kline, R. B. (2005). *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LaFromboise, T., Coleman, H. L., & Gerton, J. (1993). Psychological impact of biculturalism: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14(3), 395-412.

Narainsamy, K., Rothmann, S., & Hoffman, J. (2024).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of adolescent learners: A latent profile analysis.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54(3), 364-377.

Nguyen, A.-M. D., & Benet-Martínez, V. (2013). Biculturalism and adjustment: A meta-analysi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4(1), 122-159.

Phinney, J. S., Horenczyk, G., Liebkind, K., & Vedder, P. (2001). Ethnicidentity, immigration, and well-being: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493-510.

Schwartz, S. J., Unger, J. B., Zamboanga, B. L., & Szapocznik, J. (2010). Rethinking the concept of acculturation: Implica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65(4), 237-251.

Sirin, S. R., Gupta, T., Ryce, P., Katsiaficas, D., Suárez-Orozco, C., & Rogers-Sirin, L. (2013). Understanding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rajectories of mental health symptoms for immigrant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4(5), 199-207.

Ward, C., & Kennedy, A. (1993). Where's the "culture" in cross-cultural transition? Comparative studies of sojourner adjust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4(2), 221-249.

Watson, J., & Nesdale, D. (2012). Rejection sensitivity, social withdrawal, and loneliness in young adul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2(8), 1984-2005.

Wilkinson, R., & Pickett, K. (2020). *The inner level: How more equal societies reduce stress, restore sanity and improve everyone's well-being*. Penguin.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Eun-Kyung Seo, Sun-Sook Park

Dept of Nursing, Daedong College, Dept of Social Welfare, Tongmyo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direct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investigated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is relationship.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ulticultural adolescents with higher levels of Korean cultural acceptance tended to receive greater social support, and those with higher levels of social support showed lower levels of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dolescents whose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increased over time also experienced increases in social support, and increases in social support were associated with decreases in psychological maladjustment. Second, acceptance of the foreign parent's cultur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initial level of social support, but i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sychological maladjustment or on longitudinal changes in social support. Third, the initial levels of both Korean cultural acceptance and foreign parent's cultural acceptance ha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the changes in psychological maladjustment through social support. In addition such that changes in social suppor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cultural acceptance and changes in psychological maladjustment, resulting in a decrease in psychological maladjustment over time. Overall, the attitude of accepting Korean culture had a more important positive effect on psychological maladjustment than the attitude of accepting foreign parents' culture, and social support functioned as a important protective factor in the process.

Keywords: Multicultural Youth, Bicultural Acceptance,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Maladjustment, Latent Growth Model, Longitudinal Study